

Author Unknown

흑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코에 생기를
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- 우리
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
 주 하나님을 사랑해 -
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
 이 몸을 주께 바치리 -
 항상 내 생활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
 나의 주를 섬기리라 -